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20장 다같이

1.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3.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6:1-8 인도자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라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설 교 “ 송사 신드롬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사 신드롬”

(고린도전서 6:1-8)

한국은 초갈등사회다. OECD 국가 중 갈등지수가 32위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 대비 소송 건수는 한국이 일본의 4배 내지 6배 높다. 국민의 소송 선호적 경향이 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사소한 분쟁에도 화해나 용서를 못 하고 고소고발이나 소송제기로 이어진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대로 합시다”보다 “법대로 합시다”가 주류를 이룬다. 교회에는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성경과 교리와 신조가 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문제는 교회 재판에서 공정성, 전문성, 공개성, 확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회 분쟁을 사회법으로 가져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교회가 건강하면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공동체가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면 분쟁이 생긴다 해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에서 시작된 분노가 점점 자랄 뿐 아니라 처벌도 심화되는 것을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5:22). 제사보다 화목을 먼저 추구하라고 하셨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다툼은 없을 수 없지만, 종말론적인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를 위한 네 단계의 치리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먼저 일대일로 만나 권면한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권면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말한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간주하여 출교하라는 것이다(마18:15-17). 하지만 이렇게 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교회의 치리기관들을 넘어 사회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것이 현재 교회에 만연한 송사 신드롬이다. 그러나 성도들 간의 소송에 있어서 옳고 그름보다 화목이 우선이다. 예수님은 고별기도(요17장)를 통해 교회의 하나 됨을 간구하셨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예수님의 소원이요, 우리가 응답해야 할 기도다. 정말 억울하고 교회치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면, 검증된 법조인들이면서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기독교화해중재원에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린도 교회의 파벌과 분쟁 문제(고전1:11-13)를 다룬 바울은 본문에서 소송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바울은 어떤 교인이 다른 교인을 소송했는데,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런 모든 것이 교회 안의 어린아이 신자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소송한다. “구태여”라는 말은 “감히”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법정에 가는 일은 무모한 용기라는 의미다. 세상 법정이 공정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2절), “세상 일”(3절), “세상사건”(4절)이다. 즉 일상의 일과 재정에 연관된 문제이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과 타락한 천사까지도 심판해야 하는 존재다. 교인들 사이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은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고린도교회 전체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아무리 억울해도 원고가 세상 법정에 호소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것이 더 낫다. 피고도 문제다. 아마 그는 형제에게 불의를 행한 것 같다. 기독교인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계속 불의한 일을 한다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성도의 세상 송사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둘 다 이미 패배했다. 그들은 모두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패배했다. ▶화평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전에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평화다. 세상 법정으로 빨리 달려가려는 발을 멈추어야 한다. 그 이전에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한다.